

우리 집에 여자가 산다.

제작: 서경대 영화영상학과 3학년 1학기 영화제작실습 수업

연출/각본: 우 혁

촬영 시기: 2021년 4월 16일 ~ 4월 18일 (3회차 예정)

제작의도

우리는 꼭 훌륭한 스타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열렬하게 좋아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 사람이 연인, 친구, 부모, 가족일 수도 있다. 그 사람에 대한 깊은 호감이 있다면 환상과 동경은 존재한다. 하지만 살다보면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로 그것들이 깨 부서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나 자신의 성장 또한 이룰 수 있다.

등장인물

유정호(23): 대학교 2학년 학생. 남고, 공대, 군대코스를 밟고 그 동안 봐온 여자는 엄마, 할머니뿐인 남자. 여자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전형적 모태솔로.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음. 배려심이 많고 자상하며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는 내성적 성격. 약간의 결벽증이 있음. 한 달 전 연희의 고백으로 연희와 첫 연애 중.

김연희(20): 대학교 1학년 학생. 정호를 너무나도 의지하고 믿는 여자친구. 밝고 쿨한 성격. 언제나 솔직 당당하고 어린 나이에 생활력이 뛰어난 20살 여자. 매일 같이 도망을 갈 준비를 하고 갖고 다니기 힘든 캐리어를 들고 다님.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의 소유자. 친한 여자 동기들에게 가끔 신세를 지고 있음.

시놉시스

강의를 마친 정호가 학교건물에서 나온다. 그 뒤를 따라 캐리어를 끌며 동기들과 나오던 연희는 동기들과 헤어지고 뛰어와 정호를 놀래 킨다. 갑자기 연희는 길 한가운데서 캐리어를 연다. 그리고 정호에게 빌렸던 우산을 꺼내 되돌려준다. 평소 연희에게 호감을 품던 정호는 연희가 머리를 흔들리며 배시시 웃는 모습에 반한다. 정호가 받은 우산손잡이에는 처음 보는 키링이 달려있다. 연희는 고맙다며 밥을 사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호와 연희는 가까워진다.

한 달 뒤, 늦은 밤 정호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정호의 폰 홀드화면은 연희와 찍은 커플 사진이다. 초인종이 울린다. 정호가 문을 열자 캐리어를 든 연희가 울먹이며 집으로 들어온다.

시간이 흐르고 울음을 멈춘 연희는 갑자기 정호에게 동거를 제안한다. 연희는 친척집에 최근 머물고 있는데 눈치가 보여 같이 못 살겠다고 정호에게 같이 살자고 매달린다. 갑작스런 제안에 정호는 당황한다. 연희는 어쩔 수 없다며 실망하고 짐을 챙겨 나가려 한다. 결국 정호는 연희를 잡기위해 같이 살기를 약속한다. 그러면서 둘의 동거생활이 시작된다.